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에 관한 연구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로-

윤지환*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and Appropriation Activity: The Case of Mullae Art Village in Seoul

Jihwan Yoon*

요약 : 본 논문은 현대 도시공간의 파편화와 소외현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주체적인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의 공간적 맥락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고 특히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본 논문은 실 세계에서 공간적 맥락을 담보로 한 사회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문래동과 관련된 통계 자료 수집 및 예술인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들이 행하는 공간적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소외 현상 극복의 실마리를 포착하는데 주력하였다.

주요어 : 공간의 생산, 문래예술공단, 문화공간, 재현의 공간, 일상성, 전유, 르페브르

Abstract : This research is aimed at providing the possibility for overcoming the current people's status of exclusion and fragmented spaces of urban regions. In this context,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how the social movements, which are in collusion with spatial characteristics, are proceeding in urban societies. In order to find the clue to such problems, this study is going to investigate the social practice especially based on Lefebvre's theory. Because of the abstract characteristics of Lefebvre's issue, an explicit case of that social theory must be contemplated for practical use of his concepts. For the purpose of proposing such practices, this research has been striving to analyze the case of Mullae Art Village through the method of interviewing the artists of that place and using the statistical data. And then this research has tried to draw the clue about how to overcome the status of exclusion by considering their spatial movements.

Key Words : production of space, Mullae Art Village, cultural space, spaces of representation, everyday life, appropriation, Lefebvre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Mast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amyjh07.yoon@gmail.com

1. 서론

도시 공간은 사회 구조와 생산 시스템의 흐름에 따라 손쉽게 영향 받을 수 있는 최전선에 놓여 있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전 지구적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정보·재화·사람의 집중과 분산을 수행하고 있으며(Jang, 2006: 301) 교환가치 개념의 확산에 기반한 공간 조직의 모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편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공간을 자율적으로 전유(appropriation)¹⁾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음과 동시에 사회적·공간적으로도 소외의 경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생산 양식의 유지, 이윤의 창출, 권력 관계의 고착화에 집중하는 현대적 공간 조직의 모순은 보다 구체적으로 쇼핑 센터의 공간 잠식과 소외 계층으로부터의 공간적 격리 등으로 나타난다(Davis, 1992). 현대 도시 공간의 조직 체계는 잉여 생산물과 이윤 창출의 통로 역할만이 공간적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위치로 전략하였다.

공간을 매개로 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확립과 사회적 지배력의 상승에 대해 Marx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사회 변혁을 주장했지만, 공간적 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그의 주장은 일상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설명을 갖출 수 없었다. 전 지구적으로 확장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공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의 생산'은 Lefebvre(1974, *La Production de l'espace*)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그의 주장은 자본주의 공간 조직에 관한 지리학자들(Gregory, D.; Soja, E.; Harvey, D.)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hields, 2005: 150). 소외의 극복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 '공간의 생산'을 언급한 데 대해 그는 실천적인 운동을 통한 사회 변화의 틀이 공간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Lefebvre, 1974). 즉 공간은 기호학적으로 단순히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유에 의해 생산된다는 실천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Kim, 2000: 64-65).

공간에 대한 인간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서 Lefebvre의 이 같은 주장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속에서의 해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문화적 속성 역시 소비 활동에 점령당한 채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략한 현실 속에서 도시 구성원의 일상적 문화는 점차적으로 거대 기업의 전략적 행위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주체성을 잃어버린 도시 구성원의 행위와 일상적인 문화는 교환가치의 잣대로 평가되는 도시 공간의 상품화와 파편화 속에 무기력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소비문화에 빠진 도시 구성원의 모습들은 현대 도시 공간의 일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외 현상의 극복과 공간적 전략을 통한 주체적 일상 문화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울 문래예술공간²⁾의 사례를 통해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Lefebvre가 주장했던 주체적 '공간의 생산'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주도하는 공간 형성 과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경제 개발의 가속화와 산업 재구조화의 거센 압력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던 문래동은 쇼핑센터와 주상복합, 소규모 철재공장 등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형성된 소규모 철재상가 지역의 저렴한 지대(rent)³⁾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던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초·중반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170여 명의 예술인들은 현재 조각, 디자인, 공연, 음악,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Institute of Arts and Urban Society, 2010: 57). 본 연구는 예술인들이 문래동에서 행하는 공간 행위가 자본주의적 소외 현상의 극복과 도시 공간에서의 일상적 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을 전유하는 행위자로서의 도시 구성원은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과 권력 체계가 만들어 낼 수 없는 양식(style)⁴⁾ 및 일상적 문화의 역량을 일으킬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밝히기에 앞서 본 논문은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 조직의 형태와 소외현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검토한

후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아울러 Lefebvre의 이론에 영향을 준 학문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Lefebvre 이론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들은 사회구조의 움직임과 사회 구성원의 주체적인 행위가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직해 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2. 자본주의 도시환경 분석 및 공간생산이론

1) 공간 재현의 변화

“경관은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개인과 부족의 역사”라는 Tuan(Koo and Sim (trans.), 2007: 253)의 진술은 인간의 개인적이고 사회 시스템적인 움직임들이 낳게 되는 공간적 변화에 대해 말해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양식의 변화가 몰고 오는 영향력의 추는 개인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의 구조적인 힘에 쫓리고 있다. 생산양식의 압박 속에 주체적인 문화 생산의 힘을 잃어버린 개인들의 움직임은 공간상으로도 극히 미미한 영향력만을 행사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Lefebvre(1974)는 「공간의 생산」에서 “인류의 공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신체의 공간(the space of the body)’에서 ‘신체를 종속시키는 공간(the body-in-space)’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주장한다(Donald Nicholson-Smith(trans.), 1991: 196). 이윤 창출의 통로로서 기능해야 할 공간적 성격의 사회적 합의점들은 진전되는 반면 일상적 문화를 포함한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신체에 대한 배제화(de-corporealization)’⁶⁾와 함께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간 조직의 편중적인 압박 속에 공간을 전유할 권리는 더 이상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고 있다.

공간 조직에서의 소외의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의 시대적 선택이 열어질 무렵의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의 발달, 자본의 축적 등 일련의

과정들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공간 재현 양식의 발달은 사유지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Figure 1). 르네상스 이전의 공간 재현 양식이 우주적 질서, 종교적 상징, 광장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 등에 기반했다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는 공간 정보의 객관화에 의한 ‘원근법적 공간(Perspectival Space)’⁶⁾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측량(measuring)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신체(body) 감각의 전적인 배제와 자연(nature)에 대한 시각(eye)적 합리화의 지배를 정당화” 시키게 되었다(Lefebvre, 1976-78: 287). 인간의 주관적 느낌과 감성에 따른 공간 조직의 양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윤 창출의 기본적 틀로 작용하는 합리적·이성적 공간 조직의 모습들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인간 존재는 사회와 공간으로부터 점차 소외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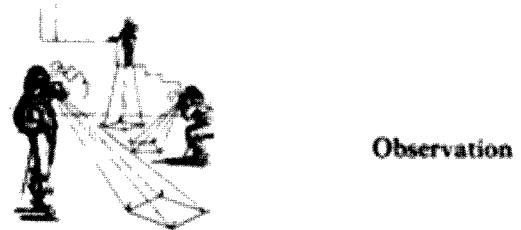


Figure 1. A seventeenth-century ‘way of seeing’ (familiar to readers of Area). 17세기 ‘보는 방식’의 변화
Source: Cosgrove, 1985: 48

2) 현대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도시환경

현대 공간 조직의 틀은 이상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유재산의 확립과 영역에 대한 확고한 경계선 설정을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공간 조직은 이후의 사회적 과정들에 의해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확고히 하게 된다. 더불어 산업혁명의 등장과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은 이러한 합리적 공간 조직의 흐름을 막힘 없이 흐르게 해주었다.

자본주의 생산 체제는 기본적으로 잉여 생산물의 축적과 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데,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M \rightarrow C \begin{matrix} LP \\ MP \end{matrix} \dots P \dots C' \rightarrow M + \Delta m \text{ etc.}$$

Figure 2. General tendency of capital circulation.
자본의일반적순환

Source: Choi (trans.), 1995: 187

여기서의 *M*은 화폐, *C*와 *C'*는 상품, *MP*는 기계류, 에너지원, 원료와 부분적인 완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생산 수단, *LP*는 노동력, *P*는 생산, Δm 은 이윤을 나타낸다(Cho (trans.), 1996: 38).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끊임없는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을 통한 이윤(Δm)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속성은 본질적으로 잉여 상품의 과잉 공급에 따른 소비의 불균형을 내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주기적인 경기 불황, 소비활동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Harvey, 1982).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공간적 전략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저렴한 생산비와 대규모 소비자를 담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자본의 이전은 생산 과정에서의 혁신, 광고를 통한 소비욕구의 자극과 함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주요 전략이었다. 생산에 유용한 공간 조직의 재편성,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하부 구조에서의 혁신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Lefebvre, 1968a; Soja, 1989; Harvey, 1989b), 자본의 향상된 이동성은 노동자 계층의 힘의 약화와 일상생활 통제에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였다.

자본의 이러한 맥락 속에 도시는 잉여 상품 생산과 소비활동의 촉진에 알맞은 조건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공간 재현 양식의 급격한 변화는 사용가치를 압도하는 교환가치의 지배적 현상⁷⁾에 공헌하였다. 이는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공간 조직과 맞물려 공간에서의 인간 소외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 개념에 무게를 둔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 체제 속에서 공간의 활용 역시 마찬가지로 화폐를 통한 교환

가치적 성격에 기댈 수밖에 없다(Lefebvre, 1968a). 공간의 실 사용자와 소유자간의 갈등 속에서 교환가치 성격을 우선시하는 현대 도시는 공간의 의도적인 가치 저하와 개발로 인한 차익의 극대화, 부동산 시장의 자극과 의제 자본의 형성 등을 통한 이윤 창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물리적 하부구조, 통신 체계, 시장 중심지를 세우기 위한 도시로의 투자는 “자본 순환의 잠재적 기초를 형성하는 동시에 자본 순환이 보다 수월하게 촉발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창출된 도심 내로 상품 및 노동력 사용 가치의 집합체”를 만들었다(Cho (trans.), 1996: 45).

현대 도시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유희적 속성(Homo Ludens)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공간 성격의 변화 가운데 억압받게 되었다(Lefebvre, 1968a). 도시의 공간적 요소가 본래의 성격으로부터 변질되는 과정 속에서 축제와 역사적 유산들은 환금적 관광 산업의 수단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변질된 축제의 성격과 함께 외관적 공간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교환가치적 성격을 중시하는 현대 도시 공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Figure 3). 과거의 건축적 형태에서 차용한 양식의 무한 복제와 콜라주(collage), 몽타주(montage) 형식의 혼합은 자본주의적 소비사회에서 공간과 기호의 상품화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Gartman, 1998).

이미지에 대한 도시들간의 경쟁적 집착과 엄격하게 관리·통제된 도시 축제의 모습들에서 인간은 공간을 전유할 권리를 상실한 채 소외의 경험을 심화시키고



Figure 3. The Trevi Fountain of Rome(left) and Seoul(right): commercializing the discourses of Rome. 로마(좌)와 잠실역(우)의 트레비 분수: 로마에 대한 담론과 기호를 상품화한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있다(Davis, 1992). 자본의 원활한 순환이라는 목적 하에 이뤄진 급격한 도시화 과정은 공간 조직에 있어서의 인간의 끝없는 소외를 강요한다. 공간을 조직함에 있어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들은 인지적이고 체험적인 관찰 대신 '논리관계에 의해 구성된' 공간적 사고에 의해 심화되었다(Kim (trans.), 2005: 69). 객관화되고 합리화된 측량에 의해 제작된 지도를 근거로 하여 모든 도시 계획은 토지 공간 이용의 경제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도시 공간 조직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경제성은 인간의 체험과 감각에 의해 형성되는 일상적인 문화에 대해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간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체험과 감각보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기호와 담론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Lefebvre(1968a)는 “언어 과학은 특수한 미세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진술한다(Park (trans.), 2005: 218).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안정된 참조 사항은 객관화된 담론과 기호만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인간의 인지적 체험과 감성에 의해 스스로 형성되어야 할 문화는 거대 기업의 상업화되고 표준화된 담론적 문화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 중에서 공간을 스스로 느끼고 조직할 힘을 잃어버린 개인은 공간에 대한 '전문가나 일반적인 의견'에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맡겨버린다(Rasmussen, 1964; Relph, 1976).

결국 일상 생활에서의 참조 대상이 언어와 기호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은 인간의 선천적 감각에 의한 진정한 공간 체험을 멀리하게 만든다. 대신 그 빈자리에는 국가적 신화와 상징화된 건조 환경을 통해 주체적인 공간 인식을 기반하는 담론화된 이미지가 자리잡게 되었다. 언어에 의해 확정된 공간 이미지는 우리가 특정 장소에 대한 감각적인 체험을 이루기도 전에 이미 각자의 행동 및 감각을 지배한다.

담론과 기호에 입각한 공간 조직의 틀은 자본주의 체제의 공간에 대한 상품화와 소비 사회의 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규정된 공간'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할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알맞은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돕는다.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은밀하게 배제하는 조

직적이고 담론화된 틀에서 개인은 '은폐된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소비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소외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재화의 생산을 위한 꾸준한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 현대 도시 공간은 대형 쇼핑센터, 퇴폐적 향락업소, 수동적 문화센터 등을 병렬적으로 배치한다(Lefebvre, 1961). 이러한 도시 환경 속에서 개인은 주체적인 문화 창조자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킨 채 담론화된 문화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생산양식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압박은 주체적 의사결정자로서의 기능 상실,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오는 사회 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3) 사회 변혁 이론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오는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이론은 Marx의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기 시작했다. 세계화의 진행과 그에 따른 자본의 공간·사회 지배력 강화는 Marx에 의해 예리하게 분석된 바 있다(Marx and Engels, 1952). 하지만 자본주의 초창기의 제한적 배경에서 형성된 Marx의 이론은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간의 단순한 대결 구도, 생산양식과 정치 체제의 변혁만으로 해결점을 찾으려 했던 장밋빛 환상 등으로 인해 비판 받았으며 실천 부문에 있어 구체적인 이론 전개의 부재로 이후 많은 학자들에게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Althusser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적 시각은 전통적 맑스주의가 가지고 있던 관념론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이상향을 부정했다. 이는 사회·문화적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의 해결만이 계급적 투쟁의 실마리라고 보았던 관점을 배격하였던 것이다.

구조주의의 이론적 관점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의 표면적 흐름을 부정하고 대신 “가려져서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 의식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에 더 가까운 문제 의식”을 탐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n, 1983: 49-50). 따라서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의 지적 호

름에서 나타나는 인간 경험과 의식적 차원의 맥락을 부정하는 대신 사회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끌어내는 무의식적인 구조와 언어에 관심을 나타낸다(Ibid: 50). 사회의 지배 구조는 의도적으로 전용된 언어⁸⁾를 통해 사람들의 무의식을 사회체제에 적합한 구조로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이는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時)·공(空)을 초월한 보편적인 구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입장은 그간 구조주의가 해체하려 했던 인식론 및 실존주의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과정으로 비쳐지기 시작하면서 구조주의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역사적이고 공간적인 맥락을 누락시켰다는 점에서 구조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둔감해졌고 이는 구조주의의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기구조주의 및 일상성 연구의 등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

구조주의의 이론적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했던 후기구조주의는 Marx의 이론을 지나치게 '거대 서사적(Meta Narrative)' 이고 일반화된 성격의 것으로 간주하고 아울러 그동안 사회학에서 중시했던 객관화된 사회적 지표들 - 경제 지수, 통계적 수치 등의 실증주의적 요소들 - 을 경계하였다. 또한 구조주의에서 드러난 언어학적 기반의 사회 구조에서 '유동적' 이고 '대화적' 인 언어 체계로의 가능성과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통한 담론(discourse)의 재조직을 기본 개념으로 발전시키게 된다(Pi, 1995).

후기구조주의의 이러한 입장은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원리보다는 다원론적인 입장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치·경제적 상부 구조의 측면에서 이끌어내야 할 변화는 문화·대중·이데올로기·과학 등 다양한 자율적 하부구조에서 담론적 변화의 실마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운동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무주체성'⁹⁾과 기호적 권력 구조의 변혁이라는 거대 담론은 사회 운동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 언어에 기반한 사회 구조만이 생산양식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해체시킬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했던 기호학적 입장은 실천적인 부분을 이

끌어내는 데 있어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상부 구조에 대한 부정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관심은 일상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사회적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중층적 효과와 자본주의 체제의 일상적 효과들에 대한 분석적 자세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기호학적 움직임에 대한 부정과 함께 일상성에 대한 연구로 자신의 영역을 전제한 Maffesoli는 교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입장이 가진 대중예의 횡포를 배격했다. 이를 대신하여 Maffesoli는 '지적 상대주의' 개념을 통해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론으로의 회귀를 감행했다. 곧, Maffesoli는 사회적인 삶을 구조화 짓는 것은 언어와 기호에 의한 것이 아닌 공통의 행위와 감정이 토대가 된 비논리적인 몸짓들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Maffesoli, 1989). Maffesoli의 이러한 생각은 서구의 전통적 Marxism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및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체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의식과 거리를 두게 한다. 기계화되고 교의적인 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대신 타자화된 구성체들과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을 중시하는 그의 생각은 개인사적이고 현상학적인 분석 방법의 사회학적인 의의를 주장한다(Ibid).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회 변혁 이론들은 Lefebvre가 '공간생산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다. Lefebvre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작동하는 권력구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구조적 힘과 기호적 체계에 의한 지배구조를 인정했으며, 한편으로는 일상에서의 행위와 감성에 의한 인식론적인 성격을 자신의 이론상에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사회 변혁 운동에서의 공간적 요소를 중시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부분의 강화를 꾀하였다. Maffesoli의 경우 지나친 상대주의의 고수와 이론화의 부정으로 실천적 방향을 이끌 실질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으며, 구조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언어 구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일상의 차원에 대한 적절한 설명력을 갖추지 못했다.

4) 공간생산이론

앞선 내용에서 암시하듯이 기호·언어에 의한 해석학적인 기반은 공간을 '읽혀지고 해석해야 할 하나의 텍스트' 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Kim, 2000: 64). 공간에 대한 해석학적인 텍스트 개념만으로는 구체적인 실천의 의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Lefebvre는 '생산'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실천의 실마리를 모색한다. "공간은 읽혀지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 (Donald Nicholson-Smith (trans.), 1991: 143)"이라는 그의 말은 사회적 변화와 생산양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영역을 담아내고 있다.

결국 '생산'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실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던 Lefebvre의 열망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속박 아래 창조의 힘이 전무한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낸다(Lefebvre, 1968a). 주변 환경에 대한 '전유'의 부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상상과 실천의 계기를 망각하게 하고 공간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수동적인 역할만을 부여 받게 만든다. 사회의 권력 구조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공간에 대한 전유는 강성해지는 반면 개인의 공간 사용에 있어 작용해야 할 전유의 역할은 갈수록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Lefebvre는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 Maffesoli와 마찬가지로 일상적 층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Maffesoli와 달리 Lefebvre는 일상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 변혁을 주장했으며 그 기저에는 공간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및 Marxism에 기반한 사상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Ibid). 또한 기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사회의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언어의 구조적 힘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권력 체계를 공간적인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Lefebvre는 기호적 시스템에 기반한 권력 체계와 허구적 이미지의 확산에 대해 '참조대상의 몰락'¹⁰⁾이라고 표현한다. 언어구조에 의한 지배권력의 확산 역시 현대인들

을 소외의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Lefebvre의 문제 인식은 구조주의의 그것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Lefebvre는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 구조주의가 가진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육체적인 감각과 물질적인 운동으로서의 공간생산이론을 주장한다.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상호연계적인 움직임들은 공간과 사회를 조직하는 힘으로 작용함을 인정하면서 그는 기호화로부터의 탈피, 실천적 행위의 중요성(Shields and, Cho, 2000: 14, 17; No, 2000: 44)에 대해 부각시킨다.

사회 변화에 있어서의 공간적 역할에 대해 언급했던 Lefebvre는 공간 생산 과정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 시킨다(Lefebvre, 1974).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심급들(정치, 경제, 문화, 국가, 지역, 일상)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사회적 형성 과정에 일조하는데 Lefebvre는 이러한 과정을 세 가지 차원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Ibid). 그가 설명하는 공간 생산의 과정들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¹¹⁾: 이는 반복적인 일상적 삶과 구조화된 사회 체계 속에서 규범화된, 경험된 공간을 의미한다. 곧, 공간적 실천은 일종의 연대 의식과 규범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지만 공간의 권력을 쥔 존재에 의해 피지배자의 일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사람들은 늘 일정한 기호·상징 체계를 고안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권력적 기호 체계의 횡포에 영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지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재현된 공간은 우리의 공간 인식 구조를 결정짓는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기념비, 도시계획,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Kim, 2000: 70)" 등의 재현 방식들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들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자율적 사고를 압박하고 구조화된 재현 양식을 통해 개인의 인식적 모델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러

한 과정들은 공간에 대한 일종의 '담론(discourse on space)' 내지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전문가적인 지식 체계(expert knowledges that conceive of space)' 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Shields, 2005: 161).

- 재현의 공간(Spaces of Representation): 앞서 언급했던 담론화되고 구조화된 공간 재현 양식과는 달리 '재현의 공간'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묘사된다(Ibid: 70). 개인의 감성과 상상으로 이뤄지는 '재현'은 '지각(perçu)'의 단순한 작용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체험(vécu)'을 통해 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일상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재현의 공간'에 대해 "결합된 심상과 상징들을 통한 '거주민'과 '이용자들'의, 또한 예술가와 아마도 서술하는 작가와 철학자의 '체험' 공간이다"라고 진술하는 Lefebvre의 의견은 공간을 이루는 데 있어 상상과 체험이 가지는 역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Donald Nicholson-Smith (trans.), 1991: 49).

Lefebvre에 의해 설명된 세가지 차원의 공간 생산 과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심급들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의 권력 구조에 의해 전용된 공간 조직의 양상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질 수 있는 해방적 통로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실천된 공간 조직의 양상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압박의 속도를 부채질 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에 영합한 상징 체계의 작업은 공간에 대한 왜곡과 본질적 요소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산양식에 기반한 공간 조직의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내부는 교환가치적 성격의 압도로 인한 공간 사용자의 무기력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상적 문화의 회복과 도시에 대한 공간 사용자의 권리 회복에 대한 화두는 특별한 존재감을 주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점차 잊혀지고 있다.

문래예술공단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간 사용

자에 의한 전유와 공간 조직의 양상이 사회 구조적 흐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곳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서울의 지배적 공간 조직의 흐름에서 벗어나 일상의 순간들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사회적 공간화 과정은 다른 공간 생산의 단계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전복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지배적 사회 질서에 대해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재현의 공간'은 예술적 감수성을 동원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생산한다(Shields, 2005: 73).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문래동 예술인들의 공간 전유와 재현 행위가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과 연결되는 지점을 밝히는 작업은 도시 구성원의 주체적인 공간 생산 역할과 도시권(Right to the City)¹²⁾의 향상을 논의하는데 있어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분석방법

지금까지 현대 도시 공간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 인식, 현대 사회의 소외 현상을 극복할 다양한 이론적 방법과 공간생산이론에 대해 살펴봤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간 생산 과정의 사회적 의미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공간적 행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현대 도시 공간에서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리적 불균등 발전과 인간에 대한 소외 현상은 도시에서의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양상과 인간적 교류의 장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시적 삶의 피폐함과 현실 세계에서의 무기력함은 일상적인 문화의 창조적 힘마저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Lefebvre의 이론에서 제시된 공간생산의 변증법적 과정을 토대로 문래동의 공간적 변화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먼저 '공간적 실천'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그것이 가져다 준 공간적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문래동에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구조적인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래동의 공간적 변화에 대해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각종 미디어와 정책들을 통해 어떤 식

으로 기호화·상징화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공간에 대한 역할 부여는 '공간의 재현'에서 흘러 나오는 사회적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이 일종의 체계모니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공간에 대한 일방적인 실천을 이끌어 낼 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과 일상적 문화는 왜곡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인지한 상태로 공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래동 공간을 전유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공간적 행위와 그들이 가진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재현의 공간'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여러 외적·내적인 동기에 의해 문래동에 자리잡은 예술인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넘어 주변 환경이 가진 공간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전유하고 있다³⁾.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앞으로 도시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상적 문화와 구성원의 주체적인 공간 조직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유 행위들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외 현상과 개인에 대한 구조적인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찰을 위해 첫 번째로, 관련 통계 자료와 공간의 역사적 흔적들을 토대로 한 문래동의 구조적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문래동 철재상가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단편적인 상황과 예술인들 유입의 계기가 되는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래예술공단의 사회적인 시각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공간의 재현)은 앞서도 밝혔듯이 관련된 미디어 및 정책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에 의한 공간 전유와 재현의 공간에 대해서는 문래동 예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식을 통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래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25명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문래동에 자리한 예술인들의 작업실 및 인근의 카페에서 이뤄졌으며 보통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지속되었다. 인터뷰는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문래동 예술인들의 공간 생산 행위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3. 문래예술공단의 구조적 배경 및 공간의 재현

1) 공간적 실천

사회의 구성 관계에 따라 조직되는 공간적 변화에 대해 주목해 볼 때(Shields, 2005: 162) 문래동은 이의 원리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왔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 조직의 형태는 실질적인 공간적 실천을 동반하며 생산 양식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때 공간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사회 및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간 조직은 이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의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시대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던 경험은 문래동에 확실한 흔적을 남긴 채 오늘날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일제시대부터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던 문래동은 해방 이후에도 그 기능을 이어간다.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5,6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문래동에 대한 기타 다른 여유를 제공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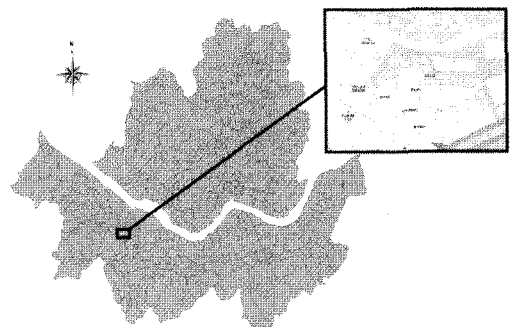


Figure 4.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Mullaedong-3-ga. 연구조사의 공간적 범위인 문래동 3가의 위치

채 대규모 공장지대와 소규모 철재상가가 혼재된 경관을 만들어갔다. 열악한 경제상황을 벗어나 발전된 단계의 경제적 수준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굳립했다(Figure 5). 도시의 일상을 조직하는 사회적 가치의 자명함(Donald Nicholson-Smith (trans.), 1991: 38)은 공간 조직에서 그대로 드러난 채 문래동을 포함한 영등포의 공간적 실천을 이끌어 낸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산업 구조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제조업을 통한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되어 가던 현상은 특히 수도권을



Figure 5. '60s discourse on fomenting industrialization. 60년대 당시 사회가 이뤄야 할 가치에 대한 담론

Source: <http://cafe.naver.com/mamj8836/1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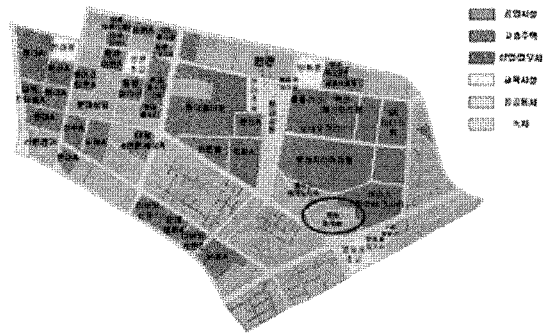


Figure 6. The change of land use in Mullae-dong (from 1995 to 2009, The circle area indicates Mullae Art Village. 문래동의 토지이용 변화상: 1995, 하; 2009, 원 안은 철재상가 및 문래예술공단의 위치)

Table 1. The change of employment proportion by industries in Metropolitan region. 서울과 경인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 변화

(units: in the thousands, %)

지역	산업	1981		1991		2001		2008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전국	2차	2,643.1	40.0	4,294.0	37.8	3,515.0	24.5	3,295.7	20.2
	3차	3,946.7	59.8	7,036.2	62.0	10,783.1	75.2	12,963.4	79.6
서울	2차	725.1	30.5	1,136.9	31.3	632.8	16.3	295.4	7.2
	3차	1,651.2	69.4	2,486.5	68.5	3,242.7	83.6	3,781.6	92.7
경인 지역	2차	538.4	57.8	1,133.3	52.9	1,149.1	34.9	1,185.0	28.2
	3차	392.2	42.1	1,007.5	47.0	2,144.0	65.0	3,015.2	71.7

Sources: Yu(2004) and the Korea's yearbook of statistics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서 탁월하게 나타났다(Table 1). 이와 더불어 수도로서의 경쟁력 및 의사결정기능의 강화, 인구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생활 공간의 확보와 도시 환경의 개선이라는 명분은 서울 내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게끔 만든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다(Lee, 2004).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들은 문래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실천되었다.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에 의해 형성되는 담론의 전체적인 구조(commonsense understanding)는 사회적인 실천의 강제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거대한 물리적 변화를 이끌어낸다(Shields, 2005: 162).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확연함으로 우리의 시야에 다가온다(Figure 6).

2) 예술인들의 문래동 유입

공장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이전적지는 곧 아파트와 기타 상업용지로 활용되었다(Figure 7). 3,000m² 이상의 대규모 이전적지는 소유권 양도의 용이함과 개발의 편리함으로 인해 보다 신속한 개발이 이뤄졌다.

공장 이전 적지의 개발은 문래동의 경관을 순식간에 변화시켰으며 활발한 생산활동이 주를 이뤘던 풍경은

이제 아파트와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선 경관으로 대체되었다. 공간을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로 바라봤을 때(Shields, 2005: 162), 이는 90년대 말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국내의 양극화된 계층적 불균형 상태(SERI, 2006: 10-15)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시장원리에 충실해지는 경제 구조는 공간적으로 “빈민이나 공공의 필요보다는 부자와 사적 소비자에게 영합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으며(Koo and Park (trans.), 1997: 108-109) 이는 저소득층이나 비주류계층의 소외, 도시 공간의 개인화, 외부공간과의 격리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Davis, 1992: 155-156). 문래동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화 되었으나 철저히 개인적인’ 거주 형태로 채워졌으며 생산-소비-생산의 순환고리를 이어주고 사람들의 소비욕구를 자극시킬 목적의 쇼핑센터에 의해 잠식되었다(Park (trans.), 2005: 152).

하지만 문래동3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철재상가 지역은 영세 업체들의 복잡한 토지 소유 관계와 도시 내 제조업체의 입지적 장점(Lee, 1996; Kim, 1998; Park, 2005)으로 인해 이러한 개발의 속도로부터 무관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철재상가 지역의 이러한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경제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다. 철재상가 건물의 2, 3층 혹은 지하에 자리잡았던 업체들은 90년대 행해졌던 정부의 이주조치에 의해 서울 외곽으로 이전되면서 해당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1층에 자리잡았던 업체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상가의 2, 3층 및 지하는 공실 상태로 남게 되면서 매우 저렴한 지대(rent)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던 예술인들¹⁴⁾(Figure 8)에게 안정된 작업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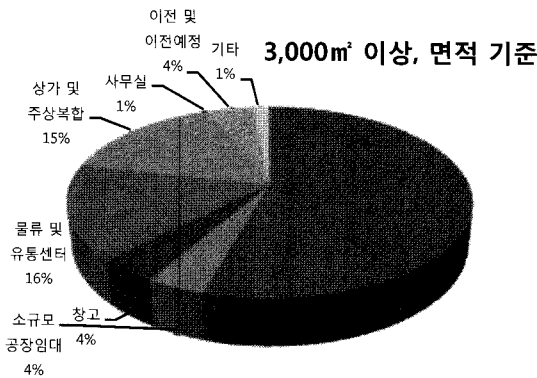


Figure 7. The ratio of land use changes of manufacturing sites in Yeongdeungpo-gu. 영등포구 공장이전적지 활용분포 현황

Sources: District Units Plan in Yeongdeungpo and Kim(1998)

“실질적으로 여기 작가들이 들어와서 그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투잡을 뛰거나…… 그래야 돈이 되고 낮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거의 없어요…… 몇몇 이름있는 작가들은 (그림에) 매진할 수도 있는데 저 또한 과외를 한다면가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죠. (작품으로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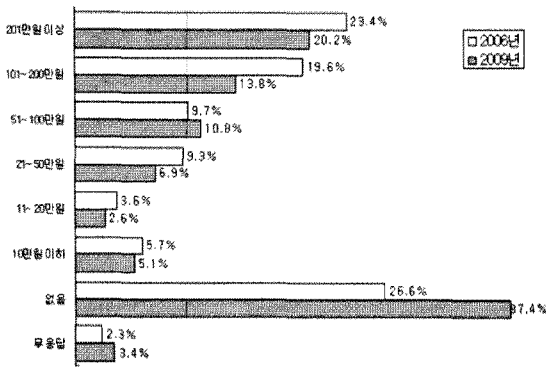


Figure 8. The ratio of artists' monthly income in Korea. 문화예술인 월평균 수입

Sources: The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Artists, 2009

은 있긴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전을 하는데…… 모르죠. 실질적으로 개인전을 해도 솔드아웃(완판)이 되기는 많이 힘들어요(평면회화 작가 B씨).”

문래동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작가 B씨의 진술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서울의 비싼 지대 조건은 경제적으로 고정된 수입을 내기 힘든 예술인들이 도시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없었고, 이는 다른 서울 도시 내부에 비해 임대료가 월등히 저렴¹⁵⁾ 문래동 철재상가지역에 예술인들이 모이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문래예술공단에는 회화, 조각, 사진, 다큐, 디자인 등의 시각예술과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의 공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Table 2).

3) 공간의 재현

사회적으로 실천된 집합적 성격의 헤게모니는 물리적 환경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실현된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문래동의 공간적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간 변화의 사회적 과정은 단지 사회 구조의 실천적 양상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Table 2. The number of artists and studios by genres in Mulle Art Village. 문래예술공단 장르별 예술인 및 작업실 현황(2010. 3월 기준,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의 자료에 답사 내용 추가하여 정리)

장르	예술인 수	창작실 수
시각예술	86(이상)	47(이상)
공연예술	62(이상)	15
이론/평론	2	1
기획	11	2
기타	19(이상)	6
합계	180(이상)	71(이상)

Sources: Institute of Arts and Urban Society (2010) and fieldtrips

공간에 대한 사회적 텍스트의 유포는 우리의 인식 구조를 지배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 전체의 담론은 ‘공간적 실천’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는 Lefebvre가 언급한 ‘공간의 재현’의 범주에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상징(symbol)과 실천적 사항들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의 확인을 통해 문래동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사회적 관심은 문래동에 대한 언론 기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해 검색된 문래예술공단에 대한 언론 보도는 2007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2010년 4/4분기까지 280개 가까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9).

예술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언론 보도에 의한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래동에서 예술인들에 의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가을은 특히 보도 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사항은 서울시 아트팩토리와 관련된 문화정책과 걸쳐노믹스 사업 발표에 대한 보도 횟수가 다른 보도 내용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Figure 10).

보도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을 들여다 보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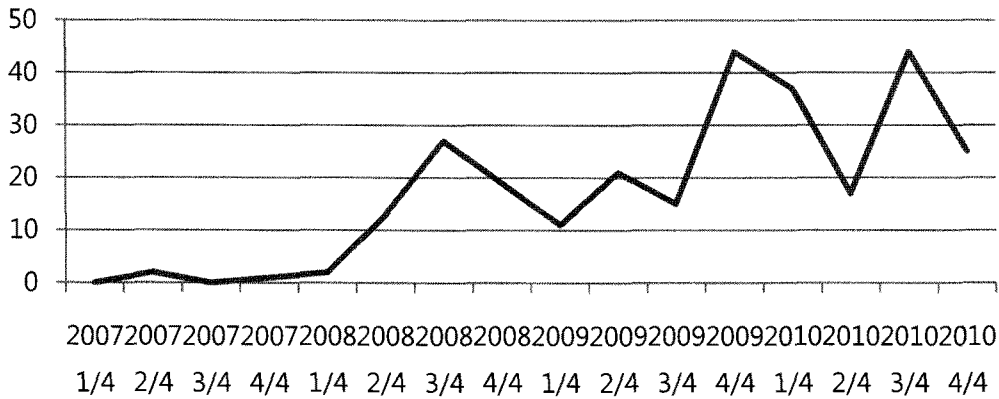


Figure 9. The variation of the number of press reports on Mullae-dong. 문래동 언론보도 횟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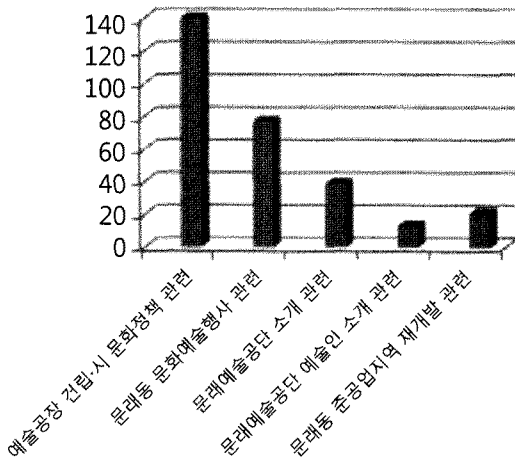


Figure 10. The number of press reports by contents. 내용별 언론보도 횟수

할 수 있게 해준다. 2008년 초부터 시작된 컬처노믹스와 문화도시 리모델링 계획에 관한 보도 내용들은 하나같이 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도시 이미지 개선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특히 '문화의 새 옷 입고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시(2008. 4. 21 뉴시스)' 나 '문화와 경제가 통하면 컬처노믹스(2009. 1. 29 경향닷컴)', '문래동, 도시재생의 최전선(2008. 6. 9 컬처뉴스)' 등의 보도 내용은 이러한 기대 심리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서울시 문화 정책의 이 같은 보도 내용과 함께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허용안과 관련된 보도 내용도

2008년 3/4분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보도 현상은 2008년 7월 당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문화를 통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언론 보도 내용은 '문화의 향기, 부동산 가치 높이네(2010. 4. 21 헤럴드경제)', '영등포 타임스퀘어-문래철재거리 연결, 쇼핑·문화벨트 만든다(2010. 10. 27 문화일보)' 등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보도 현상은 시 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철재상가 지역의 물량투입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개발 방식을 기대하게 만든다. 실제로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2009)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 정부 관계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문래예술공단을 포함한 철재상가 지역의 전면적 재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언론 보도의 흐름 속에는 서울 도시 공간 내부에 어울리는 현대적 입지 여건과 시설이 어떤 종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규범화와 상징화가 내포되어 있다. '문래예술공장, 한국의 브롱크스 꿈꾸다(2010. 1. 29 데일리안)', '철물공장 있던 곳에 예술공장(2010. 1. 25 포커스신문)' 등은 철재상가와 같은 제조업 지구가 기본적으로 '낡았다'라는 인식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뉴욕의 소호, 브롱크스, 서울의 홍대, 삼청동, 청담동 등과 같은 장소들이 되길 바라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 동향에 발맞춰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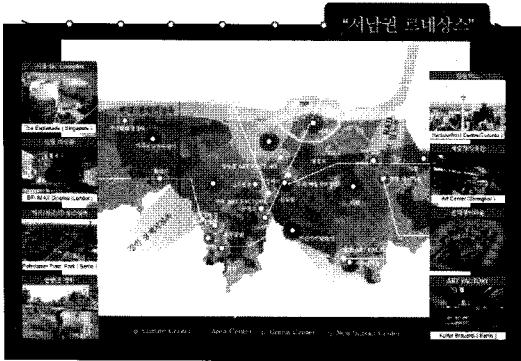


Figure 11. The image of Renaissance of the Southwest Seoul produced by city government. 언론에 배포된 서남권 르네상스 비전과 이미지를

Source: the Web site of Seoul

도권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책적 계획과 이미지를 을 쏟아내고 있다(Figure 11).

텍스트를 통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 및 견고한 기호 체계를 형성하는 언론의 힘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 씌우기나 사회의 실천적 힘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래예술공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문래동의 본질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러한 이미지 씌우기나 상징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종의 전문가나 사회적 기호 체계에서의 지식인에 의해 생산되는 텍스트는 강한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 강력한 참조대상으로 군림하며 이는 공간에 대한 기존 사회의 강제적 질서 부여, 그리고 이를 실천시키려는 구조적 힘의 생산 등으로 귀결된다(Lefebvre, 1968a; 1974). ‘한국판 브루클린, 문래예술공단 눈길 끄네(2009. 12. 10 헤럴드경제)’, ‘철공소 거리서 한국의 몽마르트르(2009. 11. 6 서울신문)’ 등의 기사에서 나온 장소적 이미지들은 듣는 사람의 귀에 얼마나 그럴듯하게 다가오는가? 문래동에 대한 이미지 생산과 선입견의 전파는 사람들에게 문래동에 대한 환상이나 왜곡된 생각들을 주입시키게 되고, 그것에 기반한 일종의 구조적인 실천들이 가시화 된다면 문래동의 공간적 성격은 더욱 왜곡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지금 현재의 부각되고 있는 문래동의

장소성…… 과장되게 표현하면 브랜드화까지도 문래동이라는 말이 앞서잖아요. (중략) 그 아까 말했던 문래동이라는 장소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지 그런 양산되는 예술의 모습, 예술가의 모습은 부차적인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퍼포먼스 작가, N씨)”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공장들 싹 내보내고 여기를 뭐가 이렇게 건축가를 불러놓고 여기를 뭐 잔디 깔고 위에 생태적으로 뭘 만들고 뭐 카페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거죠. (중략) 도심 안에 이런 준공업단지라고 하는 게 남아있고 그 안에 지금 작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있는 되게 특이한 구조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디자인 작가 P씨)”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사회적 시각이 문래동에 대한 왜곡된 방향으로 접근되는 사실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언급되듯이 문래동에는 작가들의 유입과 철재상가와 의 공존으로 인해 생기는 창작적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래동에 대한 사회적 상징과 기호적 텍스트의 확산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결과 이미 이 공간에 대한 행정상의 실천적 계획들이 예술인들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Figure 12). 계획들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들이 충분한 고민과 논의 끝에 산출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래예술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계획은 결국 왜곡된 실천과 장소에 대한 허황된 환상을 낳게 한다. 이는 비단 잘못된 기대에 따른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래예술공단이 가진 창조적 잠재력을 앗아가고 예술인들을 공간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권력의 총위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강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간의 재현’이 가진 전문가적 발상과 강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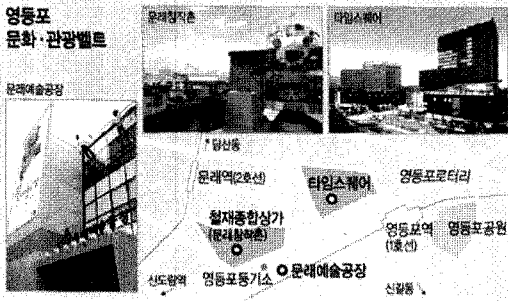


Figure 12. The plan on Mullaedong produced by Yeongdeungpo-gu. 문래동에 대한 영등포구의 정책적 계획

Source: Munhwa Ilbo, 2010. 10. 27

헤게모니의 틀에 연결된다(Lefebvre, 1974).

4. 재현의 공간

1) 예술인들의 행위 고찰에 대한 필요성

‘공간의 재현’에 대한 앞선 내용들은 문래예술공단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왜곡된 사회적 시선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문래동 내부의 모습들에 대한 이해 없이 제시되는 시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이나 실천들은 문래예술공단의 공간적 성격 및 구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래예술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적 계획들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예술인들의 생각에는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마치 이미 딱 그림을 그려놓고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지시되듯…… 그러니까 전후 선후가 바뀐 거죠. 간판을 달더라도, 아니면 무엇을 하더라도 옥상에 뭘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삶의 공간으로서, 이 어울림 속에서 그걸 노천카페를 만들 수는 있죠. 옥상에서 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마치 이렇게 똑 떨어진 사업처럼 떨어진 일로 떨어져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

까 이게 특수하고 어울림 속에서 만들어진 집하고 그냥 이게 (기관으로부터) 오다(order)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일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진작가 K씨)”

따라서 문래동의 지속 가능한 실천적 계획과 문화적 잠재력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래동 예술인들의 행위와 특성, 그리고 문래예술공단의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의 형성은 사회적 과정이며(Harvey, 2000) 그 사회적 과정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공간을 전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Lefebvre, 1968a; Tuan, 1977; Relph, 1976) 문래동 예술인들의 공간적 행위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구성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이끌어내는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 공간적 맥락이 없는 사회적 행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주 기본적인 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중요한 사실이다.

2) 문래동에 대한 예술인들의 생각

철재 공장에서 들리는 한낮의 굉음과 해가 진 후의 적막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체(철재상인, 예술인)의 공존처럼 문래동의 풍경을 이루는 요소이다. 6,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다 보니 환경적인 여건이 썩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겨울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철공장에서 날리는 쇧가루는 매캐한 냄새를 풍기면서 온 골목길을 가득 채운다. 이에 대해 예술인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러한 생활적인 불편함 외에 문래동만이 가진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적인 측면에 대해 많은 예술인들은 진술하고 있다.

“(분위기에서 오는 감성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문래동에 와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고독하고, 혼자 있고,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중략) 뭐 그런 생각을 2년 정도 하고 있다가 인제 어느 순간 이 곳이 되게 좋은 터전처럼 여겨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간 좀 술 한잔 먹고 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약간 술김에 보이는 판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애정이 확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선이 달라지니까 '아 이 공간을 내 공간으로 가꿔나가야지' 하면서 조금씩 더 마음 써서 가꾸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 있는 활동들이나 사람들도 인제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일러스트 작가 U씨)”

“이 사람들이여기의 근거 안에서 무언가 창조적인 영감들이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 돼서 작업들을 하면서 공간이 바뀔 것이고 시간이 더 들어가면 인제 긴밀한 관계 안에서 뭔가 생산물들이 만들어 질 거라는 거죠. (중략) 여기 뭐 저희도 작업할 때 그 전에는 나무로만 하다가 요즘에는 철로 하는 것도 많아졌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도 달라지는…… 이 공간들은 이미 시간이 누적시켜 놓은…… 보기 드문…… 인제 비주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색다른 지금 비주얼 충격들을 받고 있고…… (디자인 작가 P씨)”

인터뷰에 응한 두 예술인들은 문래동에 자리잡은 지 4,5년이 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문래동의 환경적 측면에 대해 남다른 감성을 축적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에 대한 애정도 각별해지게 되었다. 이 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자리잡은 예술인들은 이에 비해 문래동에 대한 공간적 느낌을 덜 가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공간적 감각과 창작의 영감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러한 측면과 동일한 맥락에서 예술인들은 문래동의 공간적 특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 시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직 예술인 마을로 치부할만한 기반이 닦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회적 행보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방해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실제로 여기 모여있는 지가 한 4,5년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형성된

지는 1,2년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중략) 그제 인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제안들이 오거나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좋은 일보다는 그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어 영등포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할테니까…… 할테니까가 아니라 그 지원할 때도 인제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적에는 별로 문제 없을 것들이 기금 받는 사람들끼리는 또 인제 그런 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나 봐요. (디자인 작가 P씨)”

“그야말로 예술촌으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인제 그것이 시간이 딱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근데 인제 마치 외부 언론 이라던지 이 뭐 정책적으로 막 자기의 성과인 양 막 떠들어대거나 (성급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좀 유치하죠. (사진 작가 K씨)”

인터뷰에 응한 두 예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문래예술공단에 대한 사회의 고정된 시선, 이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로 묶으려 하는 시도와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고찰의 부재는 자칫 이 곳이 가진 공간적 성격을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주위에서 오는 과도한 관심과 시선으로 인해 문래동에 모였던 초창기 예술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분방함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자생적인 모임을 통해 형성된 예술인 마을로서의 성격과 창작을 자극하는 공간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강제나 압박보다는 이들이 사회 구조의 견고한 틀로부터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들이 행하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공간의 소외 극복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작업에 힘써야 한다.

3) 전유와 재현¹⁶⁾

문래동에 예술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래로 이들은 꾸준히 문화예술 행사들을 개최해왔다. 예술과도시사

회연구소(Institute of Arts and Urban Society, 2010)에 따르면 예술인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행해진 문화예술 행사는 해마다 7, 8건씩 있어 왔으며 알려지지 않은 작은 행사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⁷⁾. 이러한 행사에 대해 어떤 예술인들은 친분의 목적에 의미를 두는 반면 어떤 이들은 좀 더 나아가 문래동에서의 활동을 공간적 전유의 의미로 확장시키려는 입장이 있다. 이들의 입장에는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메시지나 사회적인 의미를 전달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으며 공간을 재해석하고 규범화된 공간적 실천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보인다(Shields, 2005: 164). 지배적인 사회 질서의 틀로부터 벗어나 예술적인 감수성을 이용하여 상징적 저항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간 구성원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Donald Nicholson-Smith (trans.), 1991: 42-43; Shields, 2005: 164). 이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일상의 소외를 극복하는 능동적 주체의” 움직임이 깔려있으며 차이에 대한 실현의 욕구, 전인적 삶(total person, total space)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Jang, 2006: 307-308; Shields, 2005: 164-165).

“그때 작가들 사이에서 얘기 했었어요.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면서…… 저항의 의미죠. (평면회화 작가 B씨)”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 안에 에너지와 활력으로 그걸 막아내거나 아니면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뭐 충돌은 불가피한 거 같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충돌이…… 그것이 이제 문화…… (퍼포먼스나 작품 설치들이 충돌의 성격으로도……?) 그렇죠. 작업 내용으로서도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사진 작가 K씨)”

“또 만약에 문래동에서 그런 것들(사회적인 힘)이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커진다면 이 사회가 그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들이 모여서 그게 큰 힘이 되고 그런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정치잖아요. (일러스트 작가 U씨)”

이러한 의도를 가진 문화행사들은 그러나 언론에 노출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원래의 취지와는 변질되는 과정도 겪게 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초창기에는 행사에 참여했으나 이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예술인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순수한 유희적 속성(Homo Ludens)을 발휘할 목적으로 진행될 때 이들 문화예술행사는 놀이로서의 축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술인들이 처한 일상의 소외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Lefebvre, 1961; 1968a; 1974).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들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규정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대중적 소비문화에 대항하여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제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험(vécu)하려는 자체가 요구된다(Shields, 2005: 166).

4) 작품(œuvre)으로서의 도시공간

Lefebvre(1968a)는 현대 자본주의적인 삶이 ‘진보’를 이룰수록 생활의 편리함은 더해졌지만 양식의 소멸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Lefebvre, 1961; 1968a). 생산양식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사람들은 소비문화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는 일상적인 삶의 피폐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과거에 대한 일종의 향수마저도 느껴지는 Lefebvre의 진술은 현대 사회의 진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Park (trans.), 2005: 157-158). 생산양식의 전문화로 인해 사람들은 양식이나 예술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모두 소비 활동으로 충족될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신체적 욕구에 대한 욕망을 억압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Lefebvre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술적으로 전유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Ibid: 177). 육체는 현실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시간, 사물, 공간, 자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상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강하게 규범화된 공간 안에서 사회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어쩔 때는 폭력도 불사한다. 소비 행위는 이러한 강압적 분위기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해방적 출구로 기능하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소비 활동으로는 일상적 삶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심미적인 환경 정화만을 이룬다고 해서 일상적 삶이 아름다워지거나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Ibid: 352). 요즘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행하고 있는 거리 경관 정비나 디자인 개선 사업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인 삶의 작화화를 이룰 수는 없다. 시·공간적 맥락이 없는 아름다움은 모조품이고 겉껍데기에 불과하다. 자신이 속한 공간에 시간의 흔적을 쌓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식이 될 수 있고 작품이 될 수 있다. '작품'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문화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Ibid: 355).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시간, 공간, 육체, 사물)을 전유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그것들을 공간에 투영하여 주변의 것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현대의 팍팍한 도시적 삶에서 필요한 행위 중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문래동 예술인들이 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철재상가 지역은 아직도 활발한 생산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이지만 문래동의 몇몇 예술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예술적으로 전유하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이 단지 예술인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문래동이라는 공간이 심미적으로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었다면 예술인들에게 별다른 영감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시각적 흔적이 없는 겉모습은 그저 길에서만 맴돌 뿐 그것이 예술인들의 공간적 감수성이나 내면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 다른 오피스텔이나 원룸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에 영감을 주기에 훨씬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략) ‘예술가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치부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시 안에서 영원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디자인 작가 P씨)”

“철재상 아저씨들이랑 평소에 놀고 술도 마시고 그래요. 그 아저씨들이 하는 기술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아저씨들이 한 때 꿈꿔왔던 어떤 예술적…… 그게 어떤 음악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취미로 시작했던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과 같이 이 공간 안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죠. (사진작가 K씨)”

“문래동에 있다 보니까, 좀 제가 확장해서 열어 놓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접도 하게 되고 1층에 가서 철 자재 사서 또 ‘이런 거 할건데 자재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중략) 전적으로 하는 작업…… 함께 살아가고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서로 같이 만들면서 어쨌든 같이 해본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남기거든요. (일러스트 작가 U씨)”

문래동 철재 상가 지역에서의 예술인들은 공간을 전유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일상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틀 안에 갇혀 직업적인 성향의 활동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회복하고 철재상가라는 환경적인 요소를 자신들의 창작 활동에 전유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공통된 관심거리와 논의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서 지역의 커뮤니티 성격을 이뤄나가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내용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공용공간을 이뤄 예술인들이 나눌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의사 결정에 관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하나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Figure 13). 이는 과거의 도시중심성을 회복하고 산업화로 인해 파편화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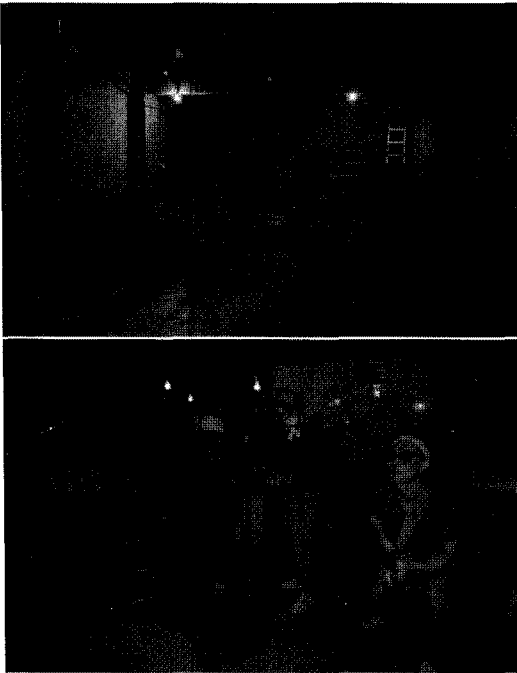


Figure 13. The public space of Artists in Mullaedong. 문래동 예술인들의 공용공간

Source: fieldtrip and Cyworld cyber community
<http://club.cyworld.com/sumiara>

공간에서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다 (Lefebvre, 1968b). 이러한 측면에 가해질 위험 요소들은 앞서도 말했던 주변의 과도한 관심이나 실천의 강제, 왜곡된 텍스트 부여 등이 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의도가 어찌 되었던 과도한 이슈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래동 예술인들의 총체적인 행위들은 일상적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구성원들과의 관계나 전유를 통해 공간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모두 세입자의 신분으로 문래동에 있다. 자본주의 소유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들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교환가치)이 아닌 사용권(사용가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들의 공간 전유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켈치노믹스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기 위한 접근으로는 문래동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에 돈이 될만한 고가의

미술품이나 문화 상품(영화, 비디오, 캐릭터 상품) 혹은 문래동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된 명소 따위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래동에서 기대해야 할 것들은 이러한 실용적 목적의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생산되는 일상성의 가치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삶을 통해 현대 도시 공간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모든 실체들에 대한 전유를 통해 일상적 삶을 작품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일상적 삶에서의 작품화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문화적 역량이 상승하는 것들을 기대해야 궁극적으로 켈치노믹스에서 취하려고 하는 목표들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일상적 삶이 회복되는 것이다. 문래동 예술인들은 이러한 방향에 대해 하나 둘씩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적 삶과 공간의 작품화가 진전된다면 사회적인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의 도시 공간이 물신성과 파편화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출발했다. 현대 도시 공간은 소유권에 기반한 관계에 묶인 채 소통과 교류라는 도시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 관계에 의해 소외된 계층은 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배제되는 결과를 겪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사회의 통합과 신뢰 기반의 구축이라는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도시 구성원들은 숨가쁘게만 달려 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속에서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현대 자본주의가 쏟아내는 광고나 잡지는 일상적 삶의 풍요로움을 예찬하지만 팍팍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허황된 꿈들을 좇기 위해 현대인들은 오늘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헌신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소비 활동으로 보상받고 있다. 소비는 현대인의 덕목 중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일상의 풍요로움을 보장받을 수 없다. 소비 활동에 노출된 현대 도시 공간은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구조적 실천에 의해 마음껏 재단되고 있으며 소위 문화공간이라고 지칭되는 장소들도 상업적 활동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점령당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시인들은 생산 양식으로부터의 소외와 공간으로부터의 소외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닫지 못한 채 생산을 위한 생산, 소비를 위한 소비 행위를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 문화의 회복과 소외로부터의 탈피를 이루기 위해 Marx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많은 학자들은 사회변혁 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Lefebvre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조주의 및 일상성 연구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간의 논의가 가지고 있던 공간적 요소와 실천적 사항의 부재는 구체적인 극복 행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만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구조주의 및 일상성 연구가 가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Lefebvre(1974)는 「공간의 생산」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공간생산이론'을 바탕으로 문래예술공단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일상에 의한 공간 조직의 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은 문래동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이윤 활동의 메커니즘에 합당한 쇼핑센터, 주상복합 등은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간의 공간적 격리와 일상적 문화의 퇴보, 교환가치 확립에 따른 공간적 요소의 파괴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온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적 공간 조직의 양상은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 및 제도권에서의 실천적 계획에 의해 더욱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공간에 대한 왜곡된 상징과 텍스트들은 이윤 창출에 대한 허황된 환상을 내포한 채 공간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파괴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다양성에 대한 담보 없이 이뤄지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도시적 삶

의 피폐함과 문화적 퇴보를 이루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요소는 Lefebvre의 논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예술인들은 문래동에서 행하는 자신들이 공간적 행위를 통해 자본주의적 공간 조직의 양상을 극복하려는 실천적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철재상가라는 주변 환경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전유하여 자신들의 작품 활동에 적용하는가 하면 문화행사들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의 생산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공간은 우리 사회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공간적 힘을 형성하면서 일상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공간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구성원들의 공간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재현은 현실 극복에 대한 실천을 공명감 있게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도시 공간상의 주체적 움직임과 적극적인 전유, 상상, 재현 등이 공간을 생산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읽어야 할 것이다. 주체적 공간 생산은 곧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압박을 극복하고 기업화된 대중 문화의 취약함을 벗어나 일상에서의 삶을 문화적 요소로 풍성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현대 도시에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본 연구는 Lefebvre의 논의를 토대로 문래동 공간이 변화하는 양상과 예술인들의 행위가 가진 공간 행위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문래동으로 흘러 들어온 구체적인 양상과 사회적 배경이 그들의 행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가진 이러한 한계는 우리 사회만이 가진 특수한 환경에서 Lefebvre의 논의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할 지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주

- 1) 전유라는 용어는 원래 사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물건이나 개념적·물리적 실체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도용(盜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공간의 차원으로 옮겨 설명하였을 때의 전유는 공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상상과 실천으로 인한 공간 활용과 공간 생산을 의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Lefebvre(1968)는 일종의 규범화되고 계층화된 공간 체계와 종속적인 권력 관계를 허무는 데 실천되어야 할 행위로서 간주하였다.
- 2) 문래예술공단은 문래동 3가를 중심으로 한 철재상가지역에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 문래예술창작촌, 문래동예술인마을 등으로 불릴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모임의 이름이었으며 준공업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래예술공단이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3) 연구자가 조사활동을 펼쳤던 지역의 예술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창작실은 최저 16만원에서 최고 63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물의 상태나 층수, 넓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들 창작실의 월 평균 임대료는 273,750원이었으며, 3층 40평을 사용하고 있는 창작실의 임대료가 보증금 없이 월 45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주변 문래동의 125.62m²(38평) 3층 상가 임대료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80만원임을 감안하면 철재상가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 4) 본 논문에서의 양식의 개념이 일상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였다. 양식이란 원래 예술 분야에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가 나름의 소재와 형태를 다루는 방법을 뜻한다(『현대세계의 일상성』, 2005: 17). 하지만 한편으로 양식은 사회의 문화적 태두리 안에 속한 '개인의 행동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Ibid: 17). Lefebvre가 의도했던 양식의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뜻하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생활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양식은 문화 그 자체이자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뿌리로서 그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작용하는 향수(nostalgia)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의 어수선한 이행을 거치면서 양식은 사라지고 대신 대중적인 취향과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과거의 양식이 제멋대로 전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Lefebvre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양식의 소멸은 사람들의 삶과 도시 공간의 폐쇄함으로 인한 작품의 소멸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 5) '신체에 대한 배제화' 혹은 '탈육체화'로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의 비인간적 성격에 대해 그레고리(Gregory, 1994: 284)

- 는 '신체의 외연적 확장 및 재현' 대신 '논리적인 기호 체계와 산업화에 기반한 공간 조직의 양상'이 현 시대를 주름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 6) '원근법적 공간'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반으로 한 '보는 방식(way of seeing)'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전까지의 인간이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적극적으로 투영하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측량의 기술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사유지와 영토의 구분, 지극히 합리적인 공간 조직으로 전이되어 인간의 감성에 대한 배제를 촉발시켰다.
 - 7) 사용가치(Value in Use)는 말 그대로 인간의 직접적인 필요를 통해 사용하기 위한 1차적인 사물의 효용을 의미한다. 반면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는 좀 더 2차적인 목적, 즉 등가교환(Exchange of Equivalents)의 원리에 의해 교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가치 척도이다. 측량의 효율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 이래 공간은 사유지 경계의 구분, 지리상의 발견과 식민 통치의 용이성, 자원의 개발과 재화의 수집 등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이전의 공간 활용이 인간 생존의 직접적인 필요와 영적·문화적 재현을 위한 '사용가치적' 성격에 무게가 있었다면, 이후로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사용가치적' 성격에 무게감이 쏠리기 시작했다.
 - 8) Lefebvre(1968a)는 자신의 저서 "현대세계의 일상성"에서 이러한 시각을 부분적으로 드러냈다. 그가 펼친 '공간생산 이론'의 실천적 부분에서 Lefebvre는 언어기반의 구조주의적 시각을 부정했지만,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호화된 틀로 인한 자본주의적 일상의 속박과 공간조직의 강압적인 모습들은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의 차원에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 9) 알튀세는 초창기 자신의 이론 전개에서 사회 운동의 '무주체성'을 주장한다. 이는 전통적 서구 맑스주의에서 나타난 사회 운동의 체제 전환적 모순점을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그들의 관념론적이고 역사 결정론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현실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어의 구조적 힘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
 - 10) 우리가 사회적 행동을 취함에 있어 참조할만한 것들은 모두 기호화 되어있다. 우리가 기술의 혁신을 이루기 이전에 살았던 과거는 오히려 기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는 언어 체계는 미디어나 권력 수단을 통해 견고하게 우리의 참조 대상으로서 군림한다. Lefebvre는 이러한 권력의 역학적 흐름을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 11) 여기에서 말하는 '실천'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통용되고 있는 저항적 성격의 '실천'이 아닌 일상의 삶을 구조화시키고 구성원들을 사회 체제에 순응시키는 단순 반복

- 적인 실태, 실상, 움직임 등을 의미한다(김남주, 2005).
- 12)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의 개념은 Lefebvre가 1967년 『도시에 대한 권리』(La droit a la ville: The Right to the City)에서 밝힌 개념이다. 그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도시 공간을 지배하는 과정을 밝히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의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Lefebvre의 도시권은 작품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유의 권리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 Korfman과 E. Lebas가 편집·번역한 『Writings on Cities(1996)』 및 강현수(2009)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3)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유(appropriation)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과 상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상상하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주변의 요소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용하는 실천적 행위가 없다면 전유의 범주에 해당될 수 없다. 문래동에 자리 잡은 일부 예술인들은 철재 상가의 환경적 요소를 자신의 작품활동이나 구성원들간의 교류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그들만의 독특한 전유 행위를 이뤄나가고 있다.
 - 14) 임인자(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예술노동시장의 형태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행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 외에 다른 분야에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 이중취업형태와 일부 스타 작가들에 편중된 승자독식 소득 배분 구조 등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만으로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임인자, 2007: 24-27).
 - 15) 인터뷰에 응했던 예술인들의 창작실 임대료는 최저 16만원에서 최고 63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물의 상태나 층수, 넓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지인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작실은 제외). 이들 창작실의 평균 월 임대료는 273,750원이었으며, 3층 40평을 사용하고 있는 창작실의 임대료가 보증금 없이 월 45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주변 문래동의 125.62m²(38평) 3층 상가 임대료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80만원임을 감안하면 철재상가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 16)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의 ‘재현’은 ‘공간의 재현’과 달리 ‘재현의 공간(Spaces of Representation)’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예술인들의 자율적이고 상상력에 근거한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조적이고 사회적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간의 재현’에서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간의 재현’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주입되는 실천적 움직임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재현의 공간’과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Shields, 2005).

- 17) 문래예술공단에서 꾸준히 행해지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볼레아트페스티벌, 경제없는예술프로젝트, Lab39의 기획전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예술 행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Institute of Arts and Urban Society (2010)의 연구보고서를 참조.

참고문헌

Cho, E. S. (translation), 1996, *The Urban Experience*, Hanul (초의수 역, 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Harvey, D. 1989b, *The Urban Experience*, Basil Blackwell, Oxford, UK).

Choi, B. D. (translation), 1995, *The Limits to Capital*, Hanul (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한울: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asil Blackwell, Oxford).

Choi, B. D. (translation), 2001, *Spaces of Hope*, Hanul (최병두 외 역, 2001, 희망의 공간, 한울: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Edinburgh University Press).

Davis, M. 1992, ‘Fortress Los Angeles: The militarization of urban space’, in Sorkin, *Variations on a Theme Park*, M.(ed.), M. 154-180, New York: Hill and Wang.

Donald Nicholson-Smith (translation),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UK: Blackwell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Gartman, D. 1998,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Post-Fordism?’,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9, No. 1, 119-137.

Han, S. J., 1983, ‘The Social Theories of Post-Structuralism’, *The Sociology of Yonsei*, 5, 47-62 (Korean).

Institute of Arts and Urban Society, 2010, *The Future of Alternative Urban Regeneration? A Case of Mullae Art Village* (in Korean).

Jang, S. Y., 2006, ‘Henri Lefebvre and the Production of Space’, *History and Boundary*, 58, 293-325.

Kim, D. H., 2005, Place and Placelessness, Nonhyung

- (김덕현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 Kim, N. J., 2000, 'Shedding new light on Lefebvre, H.; Dreaming a space of difference: 『Production of Space』 and Practices', *Space and Society*, 14, 63-78 (in Korean).
- Kim, S. D., 1998,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small manufacturing industry businesses in Seoul*,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n).
- Kofman, E. and Lebas, E. (trans. and eds.),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Lefebvre, H. 1968, *Le droit a la ville*).
- Koo, D. H. and Park, Y. M. (translation), 1997,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Hanul (구동희, 박영민 역, 1997,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Harvey, D. 1989a,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Oxford, UK).
- Koo, D. H. and Sim, S. H., 200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Daeyun (구동희, 심승희 역, 2007, 공간과 장소, 대운: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e, M. E., 2004,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Policies Relevant to Semi-industrial Area on the Development of Factories Relocated Sites*,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in Korean).
- Lee, J. W., 1996, *The Agglomeration Process of Small Manufactured Firms and Their Regional Linkages: A Case Study of Mullae-dong, Youngdungpo-gu*, Seou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 Lee, M. Y., 1997, *Postmodern Geographies*, Vision and Language (이무용 외 역, 1997, 공간과 비판사회 이론, 시각과 언어: Soja, Edward W. 1989, *Postmodern Geographies*, London: Verso).
- Lefebvre, H. 1976-1978, *De l'État*, 4 vols.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 Marx, K. and Engels, F. 1952 (ed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oscow.
- Min, S. K., 2006,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olarization of Wealth and Caus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Korean).
- Moore, J. with a preface by Trebitsch, M. (translation) 2002, *Critique of Everyday Life*, Verso(Lefebvre, H.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eté*, Paris: L'Arche Editeur).
- No, D. M., 2000, 'Shedding New Light on Henri Lefebvre; Consideration on the Theory of "Production of Space"', *Space and Society*, 14, 36-62 (in Korean).
- Park, J. J., 2005,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Guiparang (박정자 역,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Lefebvre, H. 1968a,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Editions Gallimard).
- Park, R. H., 2005, *An Analysis of the Spatial Agglomeration Characteristics and Milieux Innovateur of the Shoemaking Industry in Seoul*,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orean).
- Pi, J. H., 1995, 'Aufsafze: Der Textbegriff dex Strukturalismus und des Poststrukturalismus', *Buchner and Modern Literature*, 8, 193-226 (in Korean).
- Rasmussen, S. E., 1964, *Experiencing Archite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Shields, R. 2005, *Lefebvre, Love & Struggle*, New York: Routledge.
- Shields, R. and Cho, M. R., 2000, 'Henri Lefebvre: The Philosophy of Everyday lives', *Space and Society*, 14, 10-35 (Korean).
- Yu, H. Z., 2004,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Deindustrialization and the Land-use Changes of Factory-moved sites in Seoul*,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 교신: 윤지환,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이메일: amyjh07.yoon@gmail.com, 전화: 02-961-2288, 팩스: 02-964-0250)

윤지환

Correspondence: Jihwan Yoon,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e-mail: amyjh07.yoon@gmail.com,
phone: +82-2-961-2288, fax: +82-2-964-0250)

최초투고일 2011. 3. 25

수정일 2011. 4. 15

최종접수일 2011. 4. 20